

수출기업의 해외투자 계획 설문조사 결과 분석

I.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계획	1
1. 투자지역	2
2. 투자규모	3
3. 투자목적	5
4. 투자형태	9
5. 해외투자 철수 계획	13
II. 해외투자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	14
1. 국내영업에 미치는 영향	14
2. 수출에 미치는 영향	16
III. 해외투자의 애로사항	18
IV. 결론 및 시사점	19

작성 : 선임연구원 이재우 (3779-6685)
jaewoolee@koreaexim.go.kr

확인 : 실장 안상술 (3779-6679)
ssahn@koreaexim.go.kr

< 요약 >

I. 수출기업 해외투자 계획

- ☐ 수출기업 중 18%는 향후 1년내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음
 - 산업별로 석유화학, 섬유, 자동차 업체의 해외투자 계획 비중이 높음
- ☐ 투자지역 : 중국에 대한 투자계획이 39%로 가장 높으나, '08년도에 비해 하락한 반면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비중이 '08년 19%에서 30%로 높아짐
- ☐ 투자규모 :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44%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☐ 투자목적 : 현지시장 판매 목적이 58%, 생산비용 절감 목적이 18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, 원자재 확보 및 기술개발 목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함
- ☐ 투자형태 : 공장 등 생산기지 설립이 6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, 현지생산을 통한 판매의 전형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음
- ☐ 투자회수 : 수출업체중 3%가 중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경영 환경 악화, 모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철수를 계획하고 있음

II. 해외투자의 영향

- ☐ 수출기업 중 41%는 해외투자로 수출이 증가하고, 27%는 해외투자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국내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함
 - 특히, 생산기지 설립 투자계획이 있는 업체는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, 해외 공장설립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
III. 해외투자의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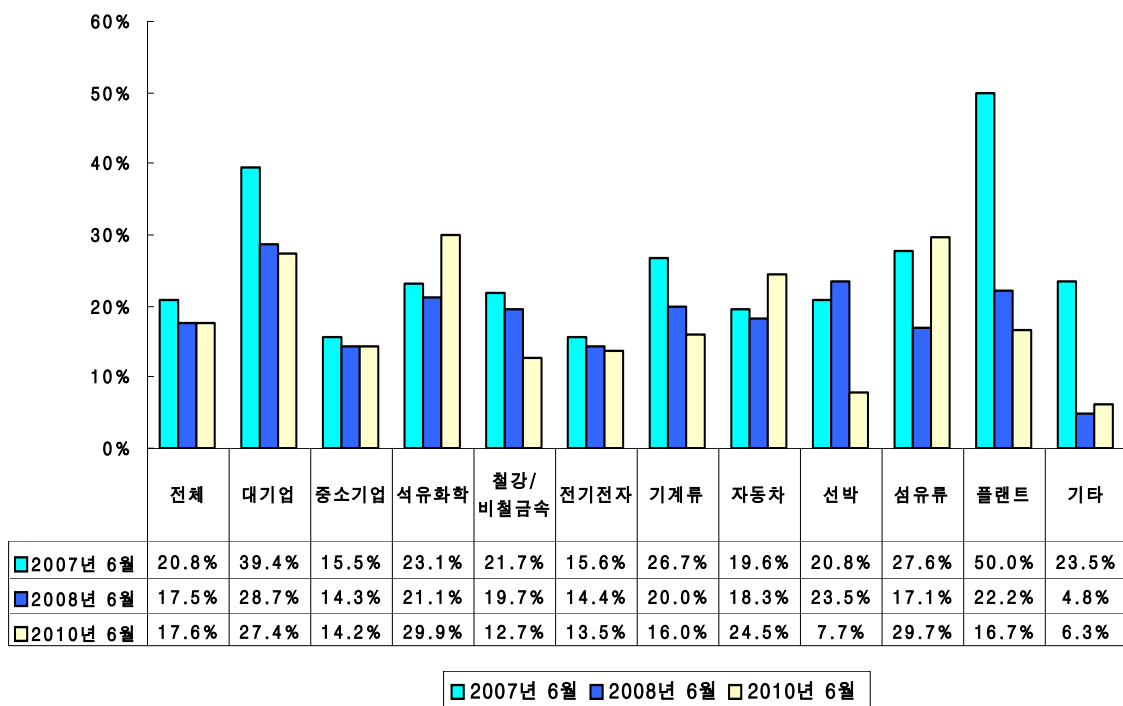
- ☐ 국내기업은 현지법인 관리인력 부족과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외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음
 - 해외투자기업이 현지화 되면서 투자국에 대한 제도·법률적 문제, 투자국 정보보다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

I.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계획

□ 수출기업 중 향후 1년내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8%로 나타남

- 신규투자계획 수출기업의 비중은 '08년(18%)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'07년(21%)보다는 낮은 수준임
- 규모별로는 대기업중 27%의 기업이, 중소기업 중에는 14%의 기업이 해외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산업별로는 석유화학(30%), 섬유(30%), 자동차(25%) 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해외투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음
- 석유화학 및 자동차 기업은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, 섬유업체는 인건비 등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

수출기업중 향후 1년내 해외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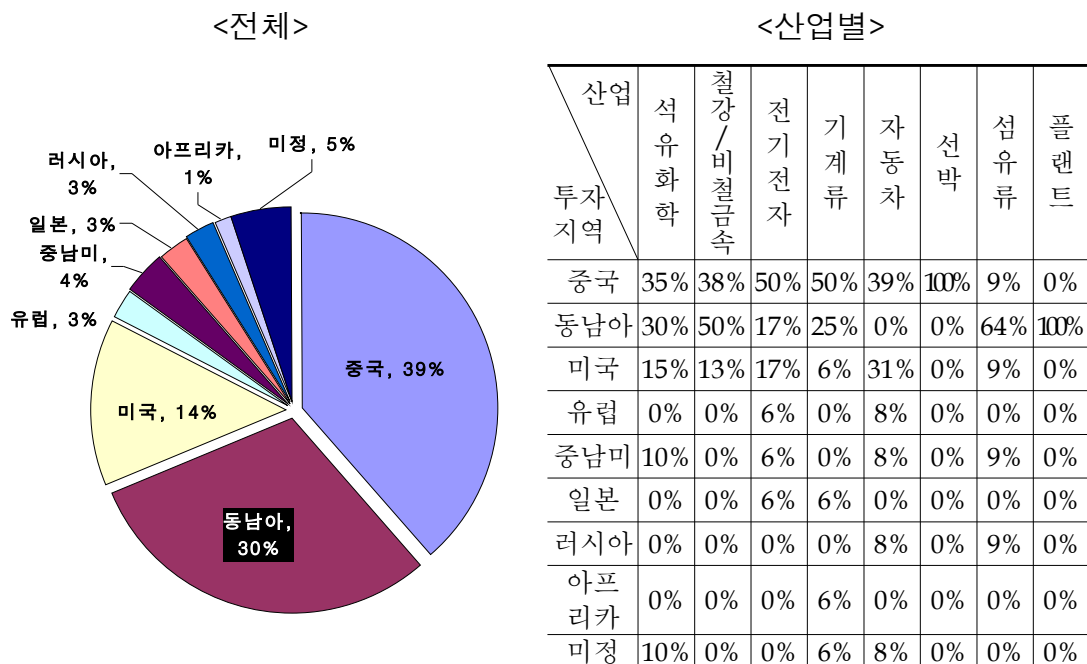


1. 투자지역

□ 해외투자 지역의 분포는 중국이 39%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에 대한 투자계획이 30%를 기록함

- '08년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계획 비중이 50%를 상회하였으나, 최근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약화되고, 임금상승 등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동남아 비중이 상승함
- 산업별로는 전기전자, 기계류 산업의 대중국 투자 계획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섬유류,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의 경우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음
- 자동차업체의 경우에는 미국 및 유럽,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, 동남아에 대한 투자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

해외투자 계획의 지역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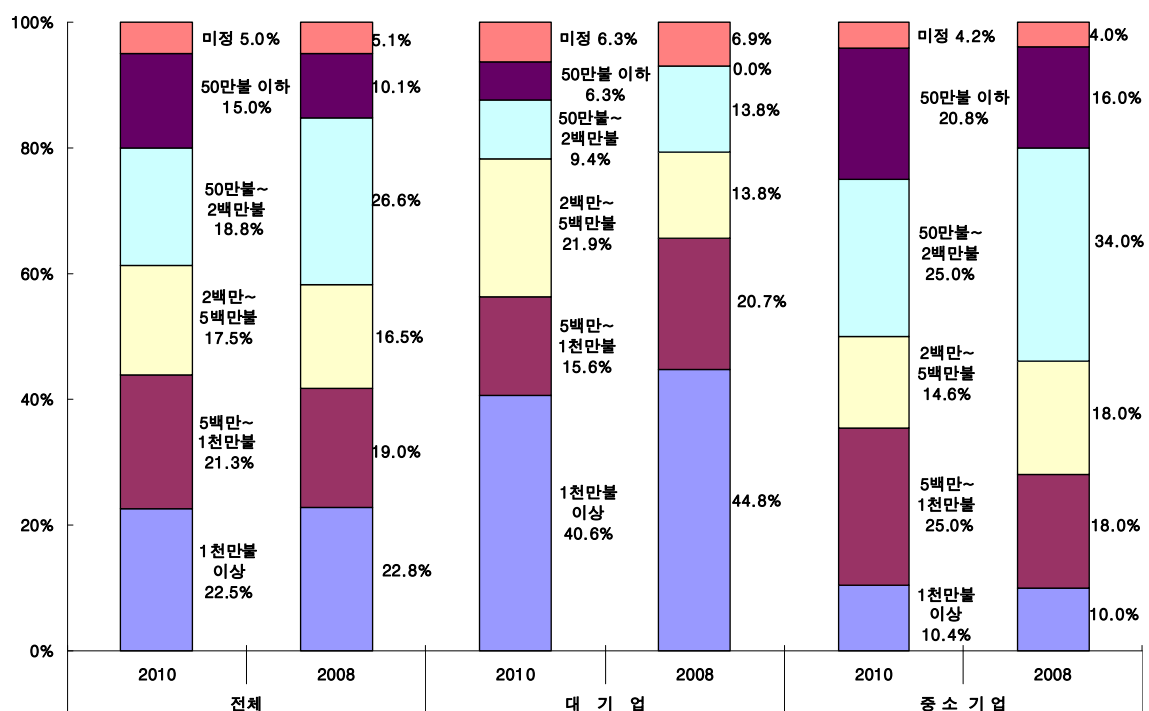


2. 투자규모

□ 투자규모별로는 1,000만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이 2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- 다음으로 500~1,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21%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해외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
- 대기업의 경우 1,0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41%를 차지하고 있음
 - 200~500만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은 '08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
-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계획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500~1,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2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2008년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50~2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은 다소 비중이 축소되었으나, 25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

해외투자 규모 계획의 분포



□ 산업별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체의 투자계획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

-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의 40%, 자동차 업체의 23%가 1,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
- 이는 동산업이 대기업 중심이고,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때문으로 판단됨
- 전기·전자, 섬유류, 기계류 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투자규모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며,
-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의 경우에는 200~1,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75%를 차지하고 있음

산업별 해외투자 규모 계획의 분포

	1천만달러 이상	5백만~1천만 달러	2백만~5백만 달러	50만~2백만 달러	50만달러 이하	미정	총 합계
석유화학	40.0%	25.0%	10.0%	10.0%	5.0%	10.0%	100%
철강/비철금속	0.0%	37.5%	37.5%	12.5%	12.5%	0.0%	100%
전기·전자	16.7%	16.7%	22.2%	22.2%	22.2%	0.0%	100%
기계류	12.5%	25.0%	6.3%	25.0%	31.3%	0.0%	100%
자동차	23.1%	30.8%	7.7%	7.7%	15.4%	15.4%	100%
선박	0.0%	0.0%	0.0%	100%	0.0%	0.0%	100%
섬유류	18.2%	18.2%	27.3%	27.3%	9.1%	0.0%	100%
플랜트	0.0%	0.0%	100%	0.0%	0.0%	0.0%	100%

□ 투자지역별은 대미국, 대중국 투자가 대규모인 반면, 동남아 국가에 대하여서는 중규모의 투자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
- 미국에 대한 투자계획 중 64%가 500만달러 이상 규모이고, 중국에 대한 투자계획의 경우 45%가 500만달러 이상임
- 중국 투자의 경우 29%가 50~200만달러 이하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소규모의 투자도 비중도 높은 편임

- 동남아시아 투자계획의 경우 42%가 200~500만달러 규모이고, 25%는 50~2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

투자지역별 해외투자 규모 계획의 분포

	1천만달러 이상	5백만~ 1천만달러	2백만~ 5백만달러	50만~ 2백만달러	50만달러 이하	미정	총합계
미국	18.2%	45.5%	9.1%	0.0%	9.1%	18.2%	100%
중국	19.4%	25.8%	9.7%	29.0%	16.1%	0.0%	100%
일본	50.0%	0.0%	0.0%	0.0%	50.0%	0.0%	100%
유럽	0.0%	0.0%	0.0%	0.0%	100%	0.0%	100%
동남아	12.5%	8.3%	41.7%	25.0%	8.3%	4.2%	100%
중남미	0.0%	66.7%	0.0%	0.0%	33.3%	0.0%	100%
러시아	50.0%	0.0%	0.0%	0.0%	0.0%	50.0%	100%
아프리카	100%	0.0%	0.0%	0.0%	0.0%	0.0%	100%
기타	100%	0.0%	0.0%	0.0%	0.0%	0.0%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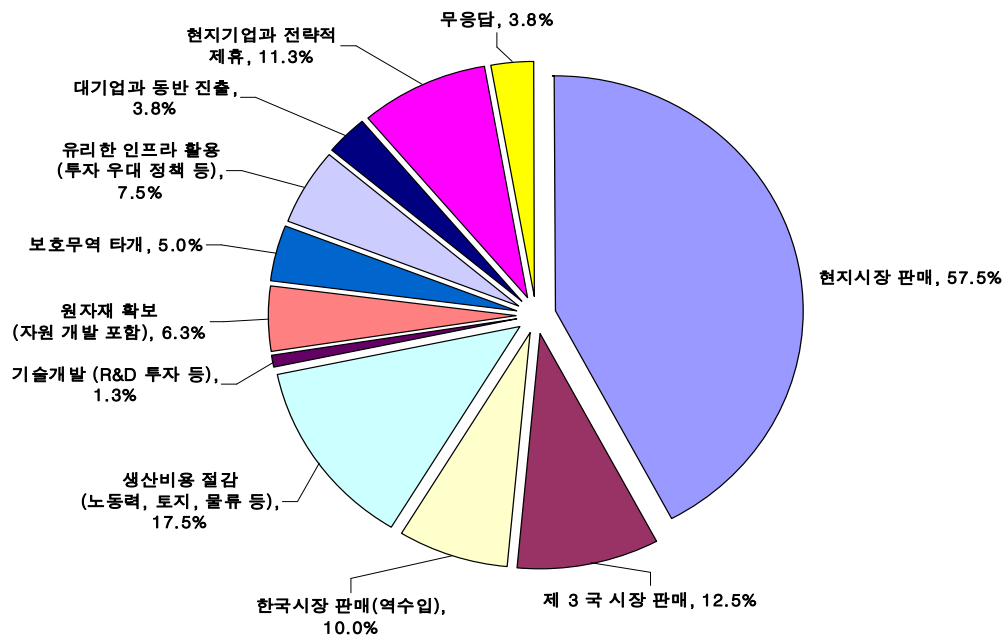
3. 투자목적

□ 수출기업이 해외투자를 계획한 목적은 현지시장 판매가 58%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비용 절감이 18%를 기록함

- 시장진출 및 확보를 위한 투자목적의 경우 현지시장 판매 목적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,
보호무역 타개 목적이 5%로 낮게 나타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FTA 등의 활성화로 무역장벽이 크게 제거된 것으로 보임
- 글로벌 자원활용 목적의 투자로는 생산비용 절감 목적(노동비용 절감 등) 이외에 현지 인프라 활용(8%), 원자재 확보(6%), 기술개발(1%) 등을 위한 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
 -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은 국내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기술유출 등으로 우려하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한편, 국내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13% 정도로 현지 판매 및 제 3국 판매 목적(23%)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외투자에 따른 역수입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단순히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시설 이전이 아님을 반증해 주는 것임

해외투자 계획 목적의 분포(복수선택)



-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투자계획의 경우 현지시장 판매 목적(66%)과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(22%) 목적 비중이 높음
-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시장 판매 목적(52%)이 대기업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생산비용 절감 목적(19%)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중소기업의 '08년 설문조사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 목적이 54%로 높게 나타났으나,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되어 노동비용 상승 등 영업활동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- 대기업과의 동반진출도 4%로 '08년의 22%보다 낮아짐

해외투자 계획 목적의 분포: 기업규모별(복수선택)

	현지 시장 판매	제3국 시장 판매	한국 시장 판매	생산 비용 절감	기술 개발	원자재 확보	보호 무역 타개	유리한 인프라 활용	대기업 과 동반 진출	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
대기업	65.6%	6.3%	12.5%	15.6%	3.1%	6.3%	6.3%	6.3%	3.1%	21.9%
중소 기업	52.1%	16.7%	8.3%	18.8%	0%	6.3%	4.2%	8.3%	4.2%	4.2%

□ 산업별로는 자동차, 철강 및 비철금속 기업의 현지시장 판매 목적의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섬유업체는 낮은 편임

- 자동차 업체의 경우 현지시장 판매 목적이 77%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이는 자동차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임
- 전기·전자 업체의 경우 50%의 기업이 현지시장 판매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으며 28%의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 목적 투자인 것으로 나타남
 - 전기·전자 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의 역수출 목적의 진출(17%)도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, 이 산업의 해외진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하는 사례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임
- 섬유류 업체의 경우 현지시장 판매의 목적이 36%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생산비용 절감 및 제 3국 판매 목적이 각각 27%를 차지하고 있음
 - 이는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국내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악화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

산업별,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계획 목적

	석유 화학	철강/ 비철금속	전기 전자	기계류	자동차	선박	섬유류	플랜트
현지시장 판매	65.0%	75.0%	50.0%	50.0%	76.9%	100%	36.4%	0.0%
제 3 국 시장 판매	5.0%	12.5%	11.1%	6.3%	15.4%	0.0%	27.3%	0.0%
한국시장 판매	10.0%	0.0%	16.7%	6.3%	0.0%	0.0%	9.1%	100%
생산비용 절감	5.0%	25.0%	27.8%	18.8%	7.7%	0.0%	27.3%	0.0%
기술개발	5.0%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
원자재 확보	5.0%	0.0%	16.7%	12.5%	0.0%	0.0%	0.0%	0.0%
보호무역 타개	5.0%	12.5%	0.0%	6.3%	7.7%	100%	0.0%	0.0%
유리한 인프라 활용	0.0%	12.5%	11.1%	6.3%	0.0%	0.0%	9.1%	100%
대기업 등과 동반 진출	0.0%	0.0%	0.0%	6.3%	0.0%	100%	9.1%	0.0%
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	10.0%	12.5%	5.6%	25.0%	0.0%	0.0%	0.0%	100%

□ 투자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중남미, 러시아 등 신규 시장의 경우 현지판매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, 동남아 등은 생산비용 절감 목적도 큰 비중을 차지함

- 가장 활발하게 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투자 경우, 제 3국 수출, 인프라 활용,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, 한국시장 판매 등 다양한 목적의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아프리카의 경우 투자계획 수는 적은 편이지만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,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

- 미국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 목적의 투자가 18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이는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음

투자지역별 해외투자 계획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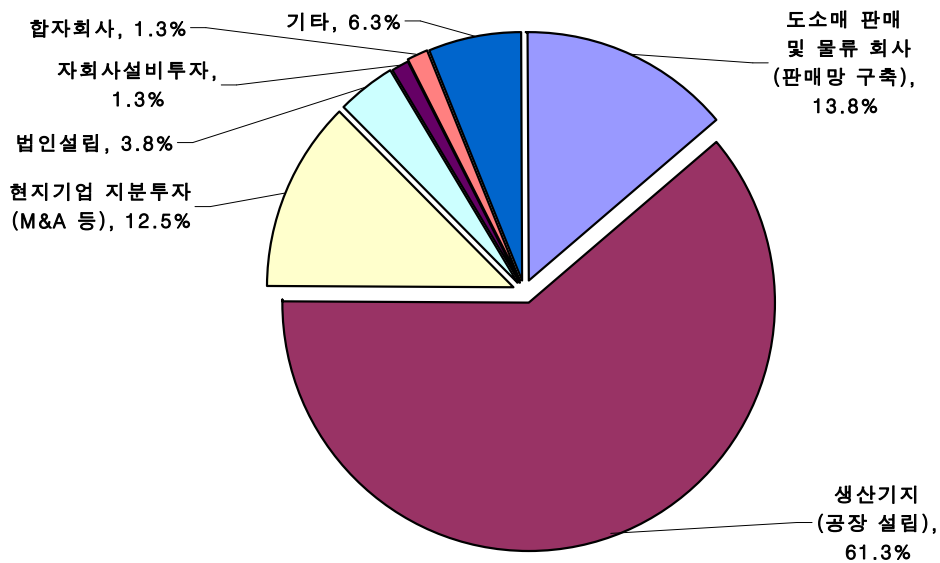
	미국	중국	일본	유럽	동남아	중남미	러시아	아프리카
현지시장 판매	72.7%	61.3%	50.0%	100%	41.7%	100%	100%	0.0%
제 3 국 시장 판매	9.1%	9.7%	50.0%	0.0%	16.7%	0.0%	0.0%	0.0%
한국시장 판매	9.1%	9.7%	0.0%	0.0%	12.5%	0.0%	0.0%	0.0%
생산비용 절감	18.2%	25.8%	0.0%	0.0%	12.5%	0.0%	50.0%	0.0%
기술개발	0.0%	0.0%	0.0%	0.0%	4.2%	0.0%	0.0%	0.0%
원자재 확보	0.0%	9.7%	0.0%	0.0%	0.0%	0.0%	0.0%	100%
보호무역 타개	0.0%	9.7%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
유리한 인프라 활용	0.0%	9.7%	0.0%	0.0%	12.5%	0.0%	0.0%	0.0%
대기업과 동반 진출	0.0%	3.2%	0.0%	0.0%	4.2%	0.0%	50.0%	0.0%
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	0.0%	12.9%	0.0%	0.0%	12.5%	0.0%	0.0%	0.0%

4. 투자형태

- 수출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투자 형태는 생산기지가 61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도소매 판매 및 물류회사가 14%를 차지함
- M&A 등 현지기업 지분투자도 13%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아직 생산기지 설립 방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
 - 합자회사 추진 방식이 1%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방식이 전반적으로 부진함
 - 최근 세계적으로 M&A 등 현지기업 인수를 통한 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

- R&D 센터의 추진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우수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R&D 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해외기술력 확보는 글로벌 경영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직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단계가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임

해외투자 형태별 분포



□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지분투자 즉 M&A 형태를 통한 해외진출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통한 현지 핵심 기업 인수를 통해 현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M&A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도소매 판매 및 물류회사 설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한편 대기업은 이미 해외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위한 투자 계획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□ 산업별로는 철강/ 비철금속 및 기계류 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분투자(M&A) 형태의 진출 비중이 높음

- 자동차 업체(부품포함)의 경우 판매망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
- 전기·전자 산업과 석유화학 업체의 경우 공장설립 목적의 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동산업이 현지생산을 통한 판매를 해외진출의 주요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- 섬유업체의 경우 생산기지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해 생산여건 악화 지속에 따른 공장이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임
 - 이는 섬유업체의 경우 현지판매 목적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 3국 수출 목적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됨

산업별 해외투자 자회사 형태 분포

	도소매 판매· 물류회사	공장 설립	현지기업 지분투자 (M&A)	법인 설립	자회사 설비투자	합자 회사	기타
대기업	3.1%	62.5%	21.9%	3.1%	3.1%	0.0%	6.3%
중소기업	20.8%	60.4%	6.3%	4.2%	0.0%	2.1%	6.3%
석유화학	5.0%	70.0%	15.0%	0.0%	0.0%	0.0%	10.0%
철강/ 비철금속	12.5%	50.0%	25.0%	12.5%	0.0%	0.0%	0.0%
전기전자	16.7%	72.2%	5.6%	5.6%	0.0%	0.0%	0.0%
기계류	6.3%	62.5%	25.0%	0.0%	0.0%	0.0%	6.3%
자동차	15.4%	61.5%	0.0%	7.7%	7.7%	7.7%	0.0%
선박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	100.0%
섬유류	18.2%	72.7%	9.1%	0.0%	0.0%	0.0%	0.0%
플랜트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	100.0%
기타	100.0%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

□ 투자지역별로는 중국,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기지 건설 추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

- 미국의 경우 공장설립 및 도소매 판매 회사 설립 이외에 자회사 설비투자 형태가 있어 기존 투자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
- 동남아시아 투자계획의 경우 공장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소매 판매 회사 설립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기업들이 해당지역에 대한 판매목적의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
- 다른 지역의 경우 투자계획 건수가 많이 않아 정확한 성향을 판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임
 - 아프리카의 경우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로 아직 진출에 대한 노하우 등이 형성되지 않아 현지기업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

투자지역별 해외투자 자회사 형태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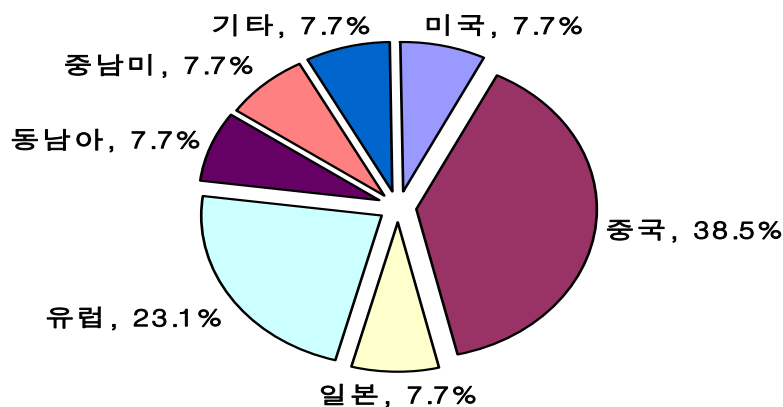
	도소매 판매· 물류회사	공장 설립	현지기업 지분투자 (M&A)	법인 설립	자회사 설비투자	합자 회사	기타
미국	18.2%	54.5%	0.0%	9.1%	9.1%	0.0%	9.1%
중국	19.4%	64.5%	9.7%	0.0%	0.0%	3.2%	3.2%
일본	0.0%	100%	0.0%	0.0%	0.0%	0.0%	0.0%
유럽	0.0%	50.0%	50.0%	0.0%	0.0%	0.0%	0.0%
동남아	8.3%	70.8%	8.3%	4.2%	0.0%	0.0%	8.3%
중남미	0.0%	100%	0.0%	0.0%	0.0%	0.0%	0.0%
러시아	50.0%	0.0%	50.0%	0.0%	0.0%	0.0%	0.0%
아프리카	0.0%	0.0%	100%	0.0%	0.0%	0.0%	0.0%
기타	0.0%	0.0%	50.0%	25.0%	0.0%	0.0%	25.0%

5. 해외투자 철수 계획

□ 수출업체중 3%는 기존 투자를 회수할 것이라고 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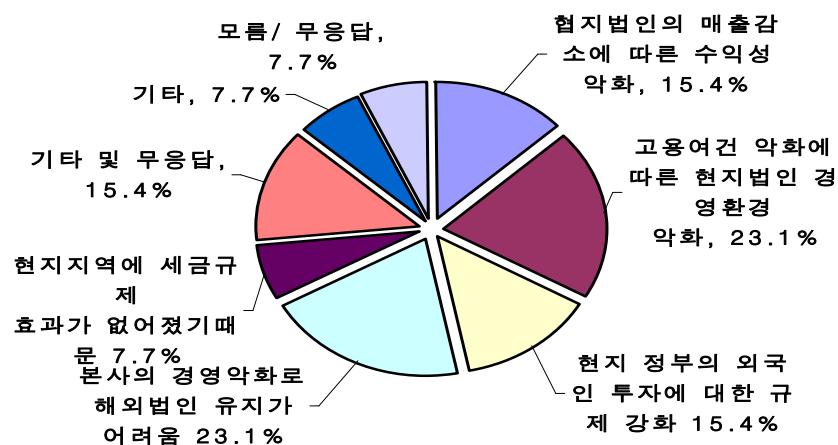
- 투자회수 지역은 대부분 중국 지역에 진출했던 중소기업임
 - 이는 중국지역의 노사문제 악화, 위안화 절상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
 - 유럽지역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유럽경제의 부진이 철수의 원인인 것으로 보임

해외투자 회수 계획의 지역별 분포



- 투자회수의 이유는 현지법인 고용여건의 악화 등 경영환경 악화와 본사의 경영악화가 각각 23%, 규제강화와 수익성 악화가 각각 15%를 차지함

해외투자 회수 이유 분포



II. 해외투자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

1. 국내영업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 중 27%가 해외투자가 국내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5%에 불과함

○ 향후 해외투자가 국내영업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'08년 조사(3%) 때보다 소폭 증가함

- 경쟁력 강화로 국내 영업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수출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'08년 41%에서 하락하여,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

○ 산업별로는 자동차, 플랜트, 섬유류 업체들이 해외투자의 국내영업 활동에 대한 긍정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판단하고 있음

- 선박업체는 해외투자로 국내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높게(7.7%) 나타났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

해외투자가 국내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

	국내 영업 활동 위축		경쟁력 강화로 국내 영업 활동 강화		별 영향이 없음		모름	
	'08.6	'10.6	'08.6	'10.6	'08.6	'10.6	'08.6	'10.6
전체	3.7%	5.3%	40.6%	26.6%	55.0%	63.3%	0.7%	4.8%
대기업	2.5%	6.0%	39.8%	31.6%	56.6%	57.3%	1.2%	5.1%
중소기업	4.3%	5.0%	41.0%	24.9%	54.3%	65.4%	0.5%	4.7%
석유화학	5.0%	4.5%	30.0%	26.9%	62.5%	62.7%	2.5%	6.0%
철강/비철금속	2.5%	6.3%	30.0%	20.6%	65.0%	71.4%	2.5%	1.6%
전기전자	4.1%	6.8%	45.2%	21.8%	50.7%	66.9%	0.0%	4.5%
기계류	2.0%	4.0%	41.2%	31.0%	56.9%	57.0%	0.0%	8.0%
자동차	2.3%	5.7%	46.5%	34.0%	51.2%	58.5%	0.0%	1.9%
선박	0.0%	7.7%	57.1%	0.0%	42.9%	76.9%	0.0%	15.4%
섬유류	8.0%	2.7%	48.0%	32.4%	44.0%	64.9%	0.0%	0.0%
플랜트	0.0%	0.0%	66.7%	33.3%	33.3%	50.0%	0.0%	16.7%

□ 투자형태별로는 생산기지 설립을 계획하는 기업이 타투자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국내영업 활동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함

-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자형태별로 국내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

투자형태별 해외투자가 국내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

	국내 영업 활동 위축	경쟁력 강화로 국내 영업 활동 강화	별 영향 없음
도소매 판매 및 물류회사	9.1%	45.5%	45.5%
생산기지(공장설립)	4.1%	49.0%	46.9%
지분투자(M&A 등)	0.0%	40.0%	60.0%
법인설립	0.0%	33.3%	66.7%
자회사 설비투자	0.0%	100%	0.0%
합자회사	0.0%	0.0%	100%

□ 투자지역별로는 일본지역 투자계획 기업중 50%가 국내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○ 이를 통해 대일본 투자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투자지역별 해외투자가 국내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

	국내 영업 활동 위축	경쟁력 강화로 국내 영업 활동 강화	별 영향 없음
미국	0.0%	63.6%	36.4%
중국	3.2%	61.3%	35.5%
일본	50.0%	0.0%	50.0%
유럽	0.0%	0.0%	100%
동남아	8.3%	33.3%	58.3%
중남미	0.0%	66.7%	33.3%
러시아	0.0%	0.0%	100%
아프리카	0.0%	0.0%	100%

2. 수출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중 41%는 해외투자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감소를 예상한 기업은 6%에 불과함

- 해외투자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은 '08년(4%)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
- 산업별로는 섬유 산업에서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선박, 플랜트 산업의 경우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남
 - 섬유 산업의 경우 현지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으나, 원자재 및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함에 따라 매출증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
 - 선박업체 중 최종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해외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로 국내에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

	수출 증가		수출 감소		영향 없음	
	'08.6	'10.6	'08.6	'10.6	'08.6	'10.6
전체	53.5%	41.1%	4.1%	5.5%	42.4%	48.1%
대기업	53.0%	43.6%	7.2%	7.7%	39.8%	42.7%
중소기업	53.7%	40.2%	2.7%	4.7%	43.6%	50.0%
석유화학	55.0%	35.8%	0.0%	9.0%	45.0%	47.8%
철강/비철금속	45.0%	42.9%	2.5%	4.8%	52.5%	50.8%
전기전자	56.2%	40.6%	1.4%	5.3%	42.5%	50.4%
기계류	45.1%	39.0%	3.9%	5.0%	51.0%	50.0%
자동차	58.1%	39.6%	14.0%	5.7%	27.9%	49.1%
선박	57.1%	23.1%	14.3%	0.0%	28.6%	61.5%
섬유류	68.0%	62.2%	4.0%	2.7%	28.0%	32.4%
플랜트	66.7%	16.7%	0.0%	0.0%	33.3%	66.7%
기타	50.0%	37.5%	0.0%	12.5%	50.0%	43.8%

□ 해외에 도소매 판매 및 물류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해외투자의 수출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음

○ 생산기지 형태의 경우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또는 제 3국 수출이 가능해 국내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

○ 자회사에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직접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투자형태별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칠 영향

	수출증가	수출감소	영향 없음
도소매 판매 및 물류회사	81.8%	9.1%	9.1%
생산기지(공장설립)	63.3%	10.2%	26.5%
지분투자(M&A 등)	60.0%	10.0%	30.0%
법인설립	100%	0.0%	0.0%
자회사 설비투자	0.0%	100%	0.0%
합자회사	100%	0.0%	0.0%

□ 투자지역별로는 모든 지역투자가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

○ 미국의 경우 완성품 생산설비의 생산기지 설립으로 직접적인 수출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

투자지역별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칠 영향

	수출증가	수출감소	영향 없음
미국	72.7%	18.2%	9.1%
중국	67.7%	9.7%	22.6%
일본	100%	0.0%	0.0%
유럽	0.0%	0.0%	100%
동남아	70.8%	8.3%	20.8%
중남미	66.7%	0.0%	33.3%
러시아	100%	0.0%	0.0%
아프리카	0.0%	0.0%	100%

III. 해외투자의 애로사항

-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관리인력 부족, 투자자금 조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이는 투자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나, 해외투자를 통한 영업과정에서 인력확보가 핵심적인 과제임을 나타내는 것임
 - '08년의 경우 현지의 법률적, 제도적 문제 및 투자국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답하였으나, 점차 해외투자에 따른 영업이 본격화되며 영업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됨
 - 투자기업이 현지 관리인력 부족 등 현지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 -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투자자금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

해외투자시 애로사항

	전체	대기업	중소기업	석유화학	철강/금속	전기전자	기계류	자동차	선박	섬유류	플랜트
투자국에 대한 정보 부족	27.5%	27.4%	27.5%	23.9%	27.0%	27.8%	27.0%	24.5%	30.8%	29.7%	33.3%
현지 파트너 선정 문제	20.4%	17.1%	21.6%	25.4%	25.4%	16.5%	22.0%	11.3%	15.4%	16.2%	33.3%
현지법인 관리인력 부족	41.5%	46.2%	39.9%	41.8%	41.3%	40.6%	40.0%	52.8%	23.1%	45.9%	66.7%
투자자금 조달 문제	32.1%	29.1%	33.1%	26.9%	28.6%	33.1%	32.0%	30.2%	23.1%	35.1%	50.0%
국내의 행정적 절차	7.3%	7.7%	7.1%	9.0%	6.3%	6.8%	8.0%	5.7%	7.7%	8.1%	0.0%
현지의 제도적, 법률적 문제	28.4%	36.8%	25.4%	26.9%	36.5%	24.8%	26.0%	24.5%	46.2%	37.8%	50.0%
모기업의 노사문제	3.7%	3.4%	3.8%	4.5%	4.8%	2.3%	3.0%	3.8%	0.0%	5.4%	0.0%
기타	22.2%	19.7%	23.1%	16.4%	20.6%	25.6%	23.0%	26.4%	38.5%	18.9%	0.0%

IV. 결론 및 시사점

- 수출기업의 해외투자는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 - 수출기업은 최근 중국에 편중되었던 해외투자 양상에서 벗어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남미, 러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음
 - 투자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해외직접투자액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
- 수출기업의 해외투자는 수출증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
 -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,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통해 수출이 확대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지 관리인력 부족 및 자금조달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
 - 과거 해외시장 정보 부족 및 현지의 제도적, 법률적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표명했던 기업들이 점차 해외투자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봉착하는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시장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현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관리인력(경영 컨설팅)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

참고 : 해외투자 계획 설문조사 개요

□ 설문기간 : 2010년 6월 5일 ~ 6월 16일

□ 설문회수 기업수

○ 총 455개 기업(대기업 117개, 중소기업 338개)

□ 설문내용

1. 현재 귀사는 향후 1년 이내에 해외 신규 투자나 투자 회수 계획이 있으신가요?

- ①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
- ② 청산 등 투자 회수 계획이 있다
- ③ 신규 투자 및 투자 회수 계획이 둘 다 있다.
- ④ 신규 투자 및 투자 회수 계획이 없다.

[신규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: 문1에서 '1'또는 '3']

2-1. 신규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?

- ① 1천만불 이상
- ② 5백만~1천만불
- ③ 2백만~5백만불
- ④ 50만~2백만불
- ⑤ 50만불 이하

2-2. 투자지역은 어느 곳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?

- ① 미국
- ② 중국
- ③ 일본
- ④ 유럽
- ⑤ 동남아
- ⑥ 중남미
- ⑦ 기타
- ⑧ 러시아
- ⑨ 아프리카

2-3. 투자 자회사의 형태는 무엇입니까?

- ① 도소매 판매 및 물류 회사 (판매망 구축)
- ② 생산기지 (공장 설립)
- ③ R&D 센터
- ④ 현지기업 지분투자 (M&A 등)
- ⑤ 기타
- ⑥ 법인설립
- ⑦ 자회사설비투자
- ⑧ 합자회사

2-4.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까?(3개 이내 복수선택)

- ① 현지시장 판매

- ② 제 3 국 시장 판매
- ③ 한국시장 판매(역수입)
- ④ 생산비용 절감(노동력, 토지, 물류 등)
- ⑤ 기술개발(R&D 투자 등)
- ⑥ 원자재 확보(자원 개발 포함)
- ⑦ 보호무역 타개
- ⑧ 유리한 인프라 활용(투자 우대 정책 등)
- ⑨ 대기업과 동반 진출
- ⑩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

[투자 회수 계획이 있는 경우 : 문1에서 '2'또는 '3']

3-1. 투자회수 지역은 어디입니까?

-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유럽
- ⑤ 동남아 ⑥ 중남미 ⑦ 기타

3-2. 투자회수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① 현지법인의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
- ② 현지의 임금상승 등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현지법인 경영환경 악화
- ③ 현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
- ④ 본사의 경영악화로 해외법인 유지가 어려움
- ⑤ 기타
- ⑥ 현지지역에 세금규제 효과가 없어졌기때문에

[모두 : 해외투자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애로사항]

4. 귀하께서는 해외투자가 귀사의 해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해외투자로 수출액이 증가한다.
- ② 해외투자로 수출액이 감소한다.
- ③ 영향 없다.

5. 그럼,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영업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
- ① 해외투자로 국내 영업 활동은 위축된다.
- ② 해외투자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국내 영업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.
- ③ 영향 없다.

6. 해외투자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? (3개 이내 복수선택)

- ① 투자국에 대한 정보 부족
- ② 현지 파트너 선정 문제
- ③ 현지법인 관리인력 부족
- ④ 투자자금 조달 문제
- ⑤ 투자에 따른 한국내에서의 행정적 절차
- ⑥ 투자법인 설립에 따른 현지의 제도적, 법률적 문제
- ⑦ 모기업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
- ⑧ 기타